

# 쿡폴리 '청미장' '콩집' 음식·도시재생 어우러진 '문화교역소'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폴리 x 로컬식경' 강좌  
25일~4월22일 매주 금요일

박재영·오석근 작가  
폴리 리뉴얼 작품 전시도

지난 2011년부터 조성된 '광주폴리' 중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자리한 쿡폴리 '청미장'과 '콩집'은 음식점으로 활용되는 독특한 공간이다. 두 장소가 폴리 리뉴얼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음식 문화 교역소'로 변신한다. 광주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 음식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재생으로까지 확대시키는 프로젝트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와 광주시는 리뉴얼 프로젝트 '광주폴리 x 로컬식경'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작품의 물리적인 재생을 넘어 연구, 강의, 시연 퍼포먼스, 레시피 개발 유통 및 공유, 전시, 출판(미디어 및 유튜브) 등 기획부터 결과물까지 사업의 확산성에 중점을 두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까지 고민해 보는 기획이다.

9개의 강좌로 구성된 '광주폴리 x 로컬식경'은 광주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콩과 들깨'를 중심으로 음식문화연구원, 사회학자, 법학 교수, 청년기업인 등을 초대에 음식과 인문학 강좌, 시식이 어우러진 프로젝트다. 강좌는 지역소멸, 토종씨앗 소멸, 청년소멸 등의 문제점을 지역도시에



(재)광주비엔날레는 리뉴얼 프로젝트 '광주폴리 x 로컬식경' 프로그램을 통해 쿡폴리 '콩집'을 지속가능한 '음식문화교역소'로 조성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제공>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사례 등을 통해 해석하고 제안,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까지 고민한다.

'콩집'은 음식과 레시피, 인문적 담론, 강연, 지역 음식을 소개하는 장 등으로 꾸러지며 '청미장'에서는 실제적인 음식의 실험과 소개, 공유가 이뤄진다.

오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쿡폴리'에서 열리는 '콩과 들깨' 강좌에는 지역 음식문화를 도시 브랜드 전략으로 구축한 부산의 사례를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한국 커피문화에서 스페셜티를 선도하고 있는 '모모스커피' (4월22일)의 부산커피 개발 전략을 만나며 조선명란 복원을 진행한 '덕화푸드' (2월25일), 복합문화공간 '영도 아레아식스' 등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삼진이음'의 '삼진이음' 그리고 도시재생 (3월4일) 강좌가 이어진다.

광주 사람들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인 콩과 들깨를 중심으로 '미향' 전라도 음식문화의 계보를 살피고 현대적 레시피로 재창조하는 강좌도 펼쳐진다. 박찬



박찬일 셰프

일 셰프가 '콩들께 요리의 스펙트럼' (3월25일)을 주제로 강연하며 기업을 이어 받은 광주의 '천천히 방앗간' 장명아 대표가 '천천히 방앗간' 그리고 비건들의 단백질 (4월1일)로 참가자들과 만난다.

또 '카스테라와 카스텔라 사이'의 저자 고영음 식문헌연구자가 '들깨라는 베이스' (3월18일)를 주제로 강의하며 '콩과 들깨의 농촌사회학' (정은정 연구자), '식탁의 전쟁 그리고 토종(들)의 소멸' (김은진 교수), '안보이는 식경, 살아있는 식경' (김대성 문화비평가) 등의 강의가 준비돼 있다.

그밖에 산수동에서 70여년 거주하며 1970년부터

'원조두유'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음식문화를 구술체로 기록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이 바탕이 되는 광주폴리의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광주폴리 리뉴얼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작품도 만난다. 박재영 작가는 광주 원도심의 기억과 역사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광주폴리 I '광주사람들'을 AR기법으로 재해석한 공공벤처 작품 '스핀-오프:포탈'을 선보이며 오석근 작가는 산수동의 골목길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기록, 산수동 주민들의 흔적을 담은 '산수사진지(寫眞誌)'를 광주폴리III '꿈집'에서 영상작업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강좌는 매회 선착순 20명까지 신청가능하다. 음식을 나누는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8시, 일반 강좌는 오후 6시30분 ~ 9시까지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광주폴리 홈페이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폴리III 쿡폴리 '청미장' ©Unreal Studio and Kerb

## 매일매일, 10년의 아침



'아침 (2012. 1. 6)'



'아침 (2018. 7. 27)'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채를 하늘에 뿌려 놓은듯한 풍경은 아름답고, 새벽녘 여명의 모습은 황홀하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얇은 구름과 수줍은 새벽달, 검은 실루엣의 무등산, 여명을 뚫고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아파트 단지까지 영감이 포착한 아침은 그에게 매일 매일 '새날'을 선물했다.

'기록'에 방점을 두는 사진 장르의 장점을 살린 그의 이번 전시는 특히 많은 이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 명소를 찾다니며 사진을 찍는 데 반해 삶과 밀착된 일상적인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 한 장소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집중작'으로 촬영,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흔적까지도 포착해 낸 게 흥미롭다.

김 작가는 "굳이 카메라를 메고 야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흥미를 갖는 일상적인 소재를 꾸준히 기록하면 의미있는 사진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동호인 등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만이 발견한 공간이나 대상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분들의 늘어 사진예술의 지평이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하는 김 작가는 지난 2019년 '아시아의 미소'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열고 사진집도 발간했다. 또 지난해 미얀마 쿠데타 발생 후 동료 작가들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특별 사진전 'Save Myanmar'전을 기획하고 전시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베란다에서 바라본 무등산

김옥열 사진전

23일~3월 6일 양림미술관

이 시간 아파트 베란다에 서면 창밖으로 멀리 무등산이 한 눈에 보였다. 하루를 지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절을 흐르는 365일 하루하루를 따라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아침 풍경은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눈에 보이는 매일의 황홀함을 마음에 담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그는 휴대 폰으로 풍경을 찍기 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 천장의 사진이 남았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옥열 사진작가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다 보이는 무등산 배경의 아침 풍경을 10년 간 기록한 사진을 모아 양림미술관 (23일~3월6일)에서 전시회를 연다. 두번째 개인 전인 이번 전시회는 양림미술관(광주시 남구 양림동 108-1) 기획초대전으로 진행된다.

전시 주제는 '흔한 날들의 특별한 기록, 10년의 아침'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흔한 날들'이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기록'으로 남은 20점의 전시작들은 그가 지난 2011년부터 북구 윤암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찍은 사진이다.

동이 틀 무렵부터 해가 솟아 오를 때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진 속 아침 풍경은 변화무쌍하다.



## 풍류회 죽선방·광주 향제풍류보존회 공연

24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백악지장(百樂之丈)과 천년의 봉황음을 찾아서'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 빛고을국악전수관은 24일 오후 7시 '백악지장과 천년의 봉황음'을 주제로 전통음악 공연을 개최한다.

풍류회 죽선방(사진)과 광주 향제풍류보존회를 초청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공연에서는 고려시대의 궁중무용인 '동동무'의 반주에 쓰이던 관악 편성의 '동동'을 시작으로 신라시대 궁중연례에서 사용된 '수제전' 전악장을 연주한

다.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수제전'은 음악 중에서의 황제라는 '봉황음'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남다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 '광주향제풍류'를 현악과 관현악 두가지 편성으로 들려준다. 현악으로는 '하현'부터 '해탄', '염불', '타령', '군악' 등을 선사하며 관현악편성으로 '계면', '양정', '우조', '굿거리' 등을 연주해 점차 빨라지고 흥겨워지는 우리 광주향제풍류의 진수를 선보인다.

매회 공연은 유튜브(YouTube)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60명 선착순.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지역혁신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2022 지역혁신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력 확보와 청년 문화예술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와 '청년인력' 2개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화예술단체(법인·기업 등) 6개를 우선 선정한다. 이후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청년인력 6명을 선발해 각 단체에 배치한다. 사업예산은 총1억여 원으로 선정된 단체별 인건비

일부 금액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는 배치된 인력의 매월 인건비(200만 원) 중 20%(40만 원)와 4대 보험 법정부담금 등을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시 소재 문화예술단체(법인, 단체, 비영리법인·단체)면 가능하다. 신청양식은 참여단체신청서, 단체증빙서류(사본) 등을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 접수(kmj@gjcf.or.kr) 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5724.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